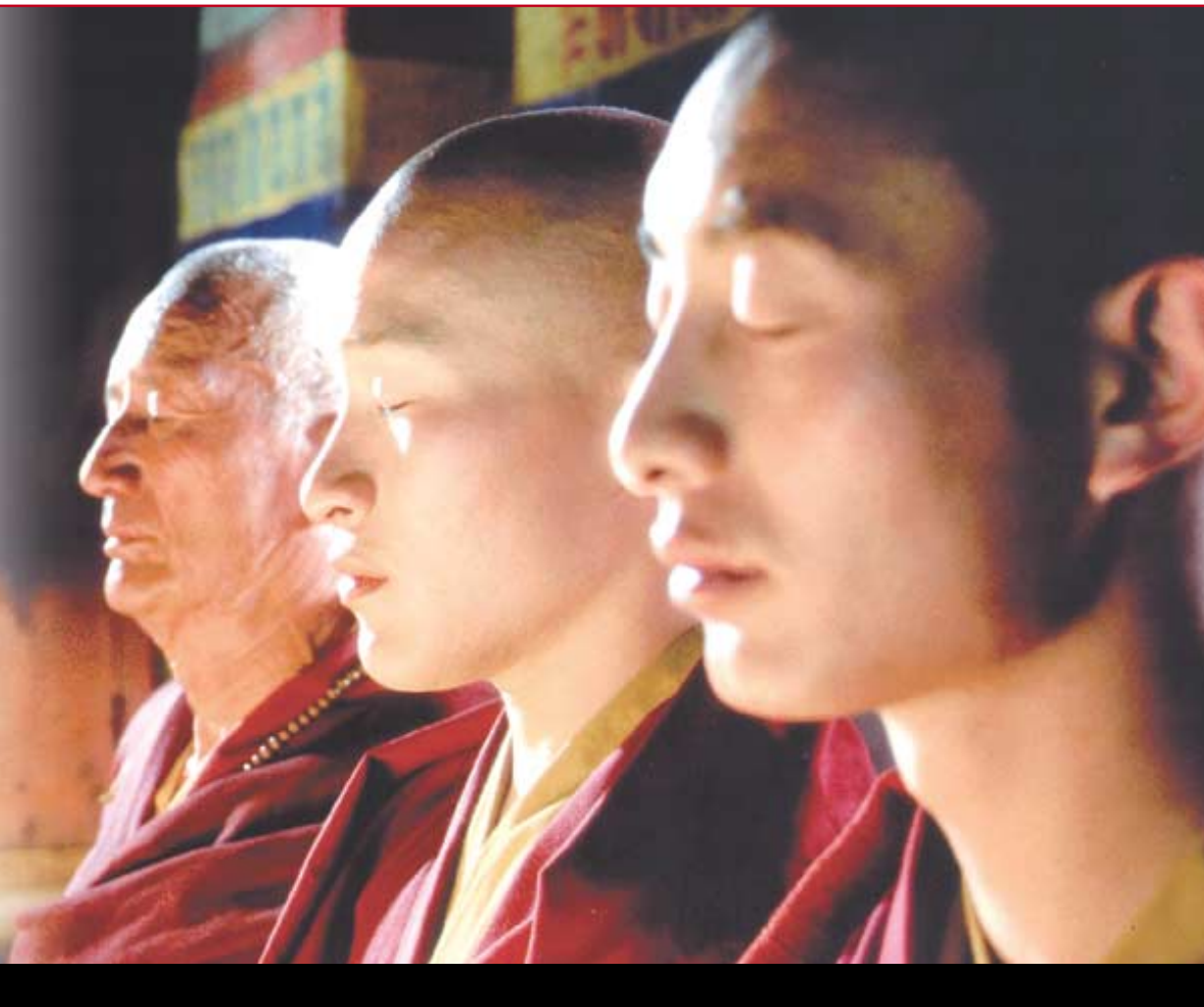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는 것...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번뇌 그리고 구도의 갈림속에서 갈등하는 내용의 외국 영화 '삼사라'가 국내에서 11월 26일 개봉된다. 독일·이탈리아·인도·프랑스 등 4개국 합작 영화인 '삼사라'는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관객과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보통 20~30분 인데 비해 '삼사라'는 무려 5시간이나 불꽃 튀는 대화를 가지는 듯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獨·伊·印·佛 합작 불교 영화 '삼사라' 개봉



번뇌로 방황하는 페마가 타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장면.

있지만 운명적으로 이끌린 타쉬와 결혼해 아들 카르마를 낳는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으며 타고난 현명함으로 항상 놀랄 만큼 바른 판단을 하지만 그녀의 슬픔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은 쾌락과 환희의 연속이지만 세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 작은 마을도 질투와 슬픔, 유혹과 시련, 부조리와 외압이 얽여 존재하는 사회였다. 세속의 복잡 다양한 가치를 모두 경험한 타쉬는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한다는 내용.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구도 사이의 갈등 라다크의 빼어난 풍광 배경으로 연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욕망과 운명의 결과 즉 업(業)에 의해서 결정된다. 감독은 주인공 타쉬가 처음에는 수행 생활을 잘하지만 페마에게 빠져 환속을 하고 다시 그 속에서 겪는 갈등이 결국은 타쉬의 업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타쉬가 다시 예전 모습인 수도승으로 되돌아 가고픈 인간 군상의 모습 즉 순환적인(삼사라) 삶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다.

▲색의 조화 고려한 아름다운 영상미 탁월

영화를 압도하는 아름다운 영상은 모든 색의 조화를 고려해 제작했다. '라다크'의 독특한 자연 요소들은 영상과 화면, 그리고 의상 디자인의 지름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절의 변화에도 맞추어 진행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려한 산맥이 펼쳐지는 도입부에서는 승복이 배경 화면의 색과 대조적으로 또는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했다. 승복은 배경의 흰 눈과 대조적으로 생동감을 주고, 흙이나 바위와 조화를 이루고 파란 하늘을 도드라지게 한다. 자연의 색을 따라 제작했을 정도로 영상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제작사가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다는데?

영화 '삼사라'의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참여한 판도라 필름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공동 제작사다. 올해 초 판도라 필름의 대표인 칼 바움가르트너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제작 발표회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티베트 같고 인도 같기도 한 영화 속 장소는 어디인가?

라다크다. 그곳은 '포스코' 광고 '실타레' '강릉' 편이 촬영지이자 몇 권의 책과 사진집만으로 알려진 미지의 장소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는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해발 3506m에 달하는 고산 사막지대에 건설된 인구 15만의 불교 왕국이다.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 1년 중 4개월이 여름이고 8개월이 겨울인 이 척박한 땅을 불심으로 일구어 한때 실크로드를 지나던 상인들이 쉬어가던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번성하기도 했으나 근대에는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외부의 접근이 통제되었다. 덕분에 1975년 외부 세계에 개방될 때까지 1천 여년이 넘는 고요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독특한 문화와 위대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글=김주영 기자 jkim@buddhanews.com



수도승들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 척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신선한 라다크 전경이 화면 뒤로 펼쳐진다.



내달 18~19일 전역 기념 콘서트

“다 른 국군장병들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너무 요란스럽게 제대하는 것 같아 민망스럽습니다.”

불자 가수 홍경민(28)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 국방부에서 전역신고를 마친 뒤 일반인으로 돌아온 홍경민은 전역소감을 밝힐때 가수로서 전성기에 입대한 것을 한 자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해 최근 일부 톱스타들의 병역비리와 대비돼 더욱 돋보였다.

2002년 10월에 입대한 홍경민은 국군홍보원 홍보지원단 소속으로 최전방에서 후방까지 100여 차례의 위문 공연을 다녀왔으며, 국군방송 DJ, 국군홍보영화 출연 등 보직인 '연예병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그는 "군 입대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군 생활에서 얻은 '자신감과 패기'로 가수활동에 전념을 다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선 다하는 불자 가수 될터”

홍경민은 12월 18~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더 플레이(The Play: 재생)'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연다. 입대 2일전까지 '일시정지'라는 이름을 달고 콘서트를 열었던 그는 당시 "제대하면 콘서트를 준비해 팬 여러분께 전역소감을 하겠습니"라고 말했던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잠깐 동안 놀려줬던 '일시정지' 버튼을 풀고, 가수로서 새롭게 '재생(Play)'되어진 그의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홍경민은 지난 2001년 본사가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개통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에 동참해 모든 핸드폰과 붓다뉴스를 통해 경전말씀을 전해준 인연이 있다. 그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던 독실한 불자다.

노병철 기자

바이오연옥® 기능성 돌침대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소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 게르마늄 :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맥인체 장애 방지시험', '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 '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 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맥반석 침대'와 관련해 경상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 연옥 맥반석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



의 온열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중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생산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만 교환 가능합니다'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